

주제* 1



강연 중인 존리 교수

아시아 난민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가톨릭 의사들의 반응

Catholic physicians' response
to refugees and damaged
people in Asia



세계 가톨릭 의사회 부회장 존 리 교수

교회는 해마다 세계 병자의 날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복음적 영상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많은 보건의료분야의 사제들과 신앙인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신 명령은 비단 빵을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루카 22,19-20)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임을 언급하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Salvifici Doloris, 1984년 2월 11일)에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시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권고하셨다. 그것은 아프고 고통받

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톨릭 보건의 종사자들은 자선을 바탕으로 약자와 병든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위엄과 양도할 수 없는 인간 권리를 부여 받은”(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 33항) 인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관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생명의 문화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따르는 우리는 모든 고통 받는 인격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세계 가톨릭 의사회(FIAMC)는 가톨릭 신자 의사들의 모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고통을 줄이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세계 가톨릭 의사회와 그 회원들은 병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일에 봉사하며,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임무가 잘 전파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가톨릭 의사회(AVCMA, 세계 가톨릭 의사회회의 아시아 지회) 회원들이 여러 해 동안 의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직적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싱가폴 가톨릭 의사회는 특히 동티모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의 피난민들과 손상된 사람들을 돕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해온 일(때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협력하기도 했는데)은 겸손에서 시작해 소외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꽃피워 왔다.

우리는 또 병자들의 희망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중재하시어 육신과 영혼에 상처입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

호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중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 중 일차적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도록 하는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재화와 장기적 계획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힘을 더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환경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상호 교류하며 감사와 조건 없는 수용, 그리고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일했던 주요 네 국가에서의 우리 사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

- ▲ 동티모르 : 국가 점령과 내전으로 파괴됨
- ▲ 미얀마 : 소수민들을 차별하는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 2004년 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고통을 당함
- ▲ 캄보디아 : 내전 이후 가난과 성 매매에 시달림.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돕는 기쁨과 보상에 대한 설명은 마더 데레사가 쓴 짧은 기도문으로 축약할 수 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며,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요, 봉사의 열매는 평화이다.’

마더 데레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부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그 분은 나병환자나 AIDS 환자처럼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안아줬다.

나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을 배웠다.